

지역 매 아리

완주 고산미소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성료

완주 고산미소시장에 흥겨운 노래자랑이 펼쳐졌다.

24일 완주군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고산미소시장에서 박성일 완주군수, 최동원 완주군의회 의장 및 지역의원, 그리고 상인 및 지역주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완주군과 전북도가 후원하고 전라북도 시장상인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참여자들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을 찾아준 방문객과 상인이 함께하는 행사로 매출증대와 시장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고산 5일장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는 코미디언 황기순씨의 사회로 완주군민들의 노래자랑이 진행됐다.

또한 한해진, 김양 등 초청가수의 축하 공연과 다양한 경품행사가 마련돼 행사에 참여한 400여명의 상인과 주민들이 모처럼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고객과 상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고산미소시장이 널리 알려져 방문객이 늘어나고 활성화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시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산미소시장에서는 오는 27~28일 이틀간 와일드푸드축제와 연계해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주말장터 및 야시장 열려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공연이 펼쳐질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씹지돈 지켜주는

금융문해교육 실시

김제시가 비문해학습자에게 기초한글 교육 등 제2의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2019년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문해학습자를 위한 금융문해 방문교육을 24일에 실시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과 국가평생교육이 함께 실시한 이번 금융문해교육에서는 글을 몰라 자칫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문해학습자의 씹지돈을 지켜주기 위해 운영되는 교육으로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과 신종파밍 예방을 위해 피해사례 중심의 설득력있는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고금리의 수익을 내세워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피해 사례 및 예방법, 불법 사채업자로 인한 피해, 대포통장 양도사기 등 금융관련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와일드푸드축제 셔틀버스 운행

완주군, 5개 코스 무료 수시 운행... 인근 주차장 완비

오는 27일 열리는 완주와일드푸드축제를 좀 더 편하게 즐기 위해서는 차를 두고, 맨몸으로 오는 게 좋다. 올해 완주군은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강화해 관광객들이 좀 더 편하게 축제장에 올 수 있도록 했다.

24일 완주군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고산자연휴양림에서 열리는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총 5개 코스의 무료셔틀버스가 운행된다.

먼저 전주종합경기장과 전주역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된다. 완주군청은 20분마다, 봉동둔산지역과 이서혁신도시에서는 1시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된다.

축제장 인근에서는 1400대를 수용가능한 대형주차장과 고산초, 고산시장, 놀토피아, 완주군청 주차장이 각각 운영되며 모두 셔틀버스가 수시로 운영

돼 관광객의 편의를 돕는다.

관광지를 연계한 버스도 운영된다. 삼례문화예술촌과 전주한옥마을(르윈호텔앞)에서 3시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되며, 익산역과 축제장을 왕복하는 차량도 오전 10시, 12시에 각각 2회 운영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축제장까지 차를 가져오는 것보다 인근에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며 "통행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청년창업가 '아리', 지평선축제 통해 아이템 홍보

김제시-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9팀 체험·홍보부스 운영

김제시(시장 박준배)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광진)가 김제시 청년창업가로 선정된 '아리'들에게 실전 창업에 앞서 창업 아이템 홍보 및 시제품 선호도 조사를 통해 창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청년창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과 관광객들의 반응을 창업 마케팅 및 홍보 아이템으로 반영하기 위해 김제시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야심차게 기획했다.

오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지평선축제 기간 동안 벽골제 농경사주제관 측면에 설치된 특별 홍보부스에서 진행되는 이틀 동안 27팀 전체의 창업 아이템을 홍보하고 이 중 9팀이 체험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체험부스에는 청년창업자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마크라메 체험, 무지 선캅에 그림그리기 체험, 드라이플라워 엽서 제작, 파니니 샌드위치 시식, 길거리노래방 등 총 12종의 다양한 체험이 준비, 지평선축제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김제시보건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열려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에서는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을 맞아 24일 대한노인회김제시지회 강당에서 제12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행사는 '치매, 안심하세요! 함께 극복해요'라는 주제로 치매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청년창업가로 선정된 '아리'가 오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지평선축제 기간 동안 벽골제 농경사주제관 측면에 설치된 특별 홍보부스에서 창업 아이템을 홍보한다.

로잡을 예정이다. 체험부스에 참가하는 강희진(28) 대표는 "그간 창업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왔는데 이번 행사 참여를 통해 창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홍보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 자신감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그들의 열정과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창업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에서 자란 청년이 김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아리'(All-Real) 사업은 '모든 것(All)을 다시, 새롭게(Restart)' 시작하자는 의지를 담은 김제시 사업명으로 전북 최대규모의 청년창업가 27팀 32명을 선정, 총사업비 6억5,000만원을 투입 추진 중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는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벽골제 일원에서 열린다.

지평선축제 콘텐츠의 완성도 강화

김제시, 풍년기원 입석 줄다리기 등 관광객 참여도 높여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표 프로그램으로 지평선축제를 이끌어 온 대표 프로그램인 전통농경문화 콘텐츠의 완성도를 강화해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김제지평선축제의 기본 컨셉인 전통농경문화의 정체성 계승과 지역문화유산의 재구성성을 통해 축제 프로그램으로 접목하고, 김제지역 고유의 하늘과 땅이 만나는 비경 '지평선'을 테마로 하여 김제시민과 관광객 참여를 골격으로 하고 있다.

벽골제 제방 축조와 관련된 벽골제를 지키고 풍년과 인간 화합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던 단아남자를 기리는 벽골제 전설 상봉놀이는 김제시 부랑면 벽골제에 내려오는 전통 민속놀이로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여 청룡을 물리치는 연출로 대중성을 가미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매년 정월대보름날 벼짚으로 만든 동아줄을 여자와 남자 두 편으로 나누어 여자가 이기면 그

해 평년이 든다는 전설의 줄다리기인 평년기원 입석 줄다리기는 한해 농사를 시작하기 전 대지의 안녕을 고하고 풍년을 염원하는 조상들의 이상이 담긴 민속놀이로 관광객과 함께 줄다리기를 하고 제방을 도는 퍼레이드를 가미, 관광객에게 보다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대한민국 '농악'이 농경문화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라북도 김제 벽골제에서 대동령배 전국농악경연대회가 28일 중앙광장에서 펼쳐지며 10월 5일에 벽골제 상봉 놀이 퍼레이드는 1,300명과 함께 축제의 전야를 밝힌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평선축제는 대한민국 전통 농경문화를 주제로 펼쳐지는 만큼 올해는 더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으며 축제장에 방문하여 마음껏 즐기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허전 김제부시장 주요기관 및 기업체 현장 방문

허전 김제부시장은 부임 이후 처음으로 24일 관내 주요기관 및 기업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지평선산업단지내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김제자유무역관리원, (주)대승, (주)일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분부를 방문하여 김제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기업체의 애로사항과 사업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생산현장을 돌아보았다.

김제자유무역지역은 2009년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되어 외국인 투자유치 및 무역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

며, 현재 31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활발히 가동 중이다. 이범천 김제자유무역관리원장은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대승과 (주)일강은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엔진의 각종 주요부품, 미션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평선산단에 786억 투자하여 58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올해에만 433억, 고용 53명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푸르밀 advertisement for NK Project N-1. Includes text: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and images of product bottles and a woman holding one.